

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<□□□□
 □□> □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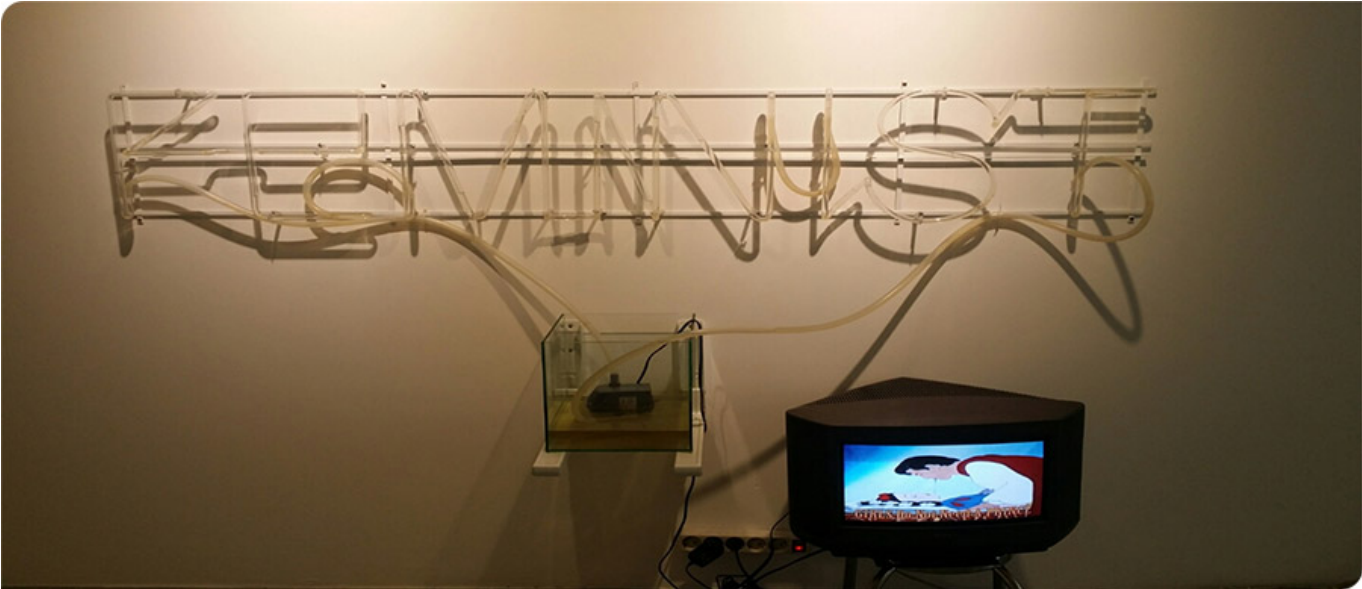


불완전한 인간
 이말 | 인세인박 | 박종영 | 송희정 | 김유석

2017.03.23^{Thu} _ 04.28^{Fri}

| 주 최 |  인천문화재단  우리미술관
 | 후 원 |  코리아문화재단  한국문화재단  동국문화재단
 | 장 소 | 우리미술관 전시관
 | 문 의 | 032.764.7664

3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 '불완전한 인간'은 이말, 인세인박, 박종영, 송희정, 김유석 등 다섯 명의 작가들이 각각의 독특한 시각과 표현 방식을 통해 '불완전한 인간'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하고 있다.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질과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얻는다. 또한,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얻는다.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얻는다.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얻는다.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얻는다.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얻는다.



([Title], [Artist])

[Description text]



([Title], [Breath])

이 작품은 <Breath>로, 나무 조각으로 제작된 인형의 얼굴을 보여줍니다. 인형의 눈은 닫혀 있으며, 입에는 붉은 꽃이 꽂혀 있습니다. 이 작품은 인형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

(이 작품, [Marionette-eye])

이 작품은 <Marionette-eye>로, 나무 조각으로 제작된 인형의 얼굴을 보여줍니다. 인형의 눈은 닫혀 있으며, 입에는 붉은 꽃이 꽂혀 있습니다. 이 작품은 인형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

(이 작품, [This Work Has No Ideology])

이 작품은 <This Work Has No Ideology>로, 나무 조각으로 제작된 인형의 얼굴을 보여줍니다. 인형의 눈은 닫혀 있으며, 입에는 붉은 꽃이 꽂혀 있습니다. 이 작품은 인형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